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김○○입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운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정의(正義)’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청중 웃음)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길’이고, 철학적으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방법이나 길’을 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슥 우화 「토끼와 거북이」를 토대로 정의로운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네, 맞아요. 느려도 꾸준히 노력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정의로운 삶’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토끼의 제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왜 물에서 경주를 하자고 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네, 그래요. 토끼는 물에서 살고 거북이도 가끔 물에 올라오니까, 물에서 경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물에 살고 있으니까 그동안 토끼의 제안을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토끼의 제안은 거북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토끼에게만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둘의 경주는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거북이의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거북이는 토끼가 경주 중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토끼의 실수를 거북이가 놓치지 않고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허점이나 실수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과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승리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통해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과 절차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정의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1. 강연자의 강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연 중 질문을 하며 청중과 상호작용을 해야겠어.
- ② 강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강연을 마무리해야겠어.
- ③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④ 강연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⑤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2.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절차적 정의는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했다면 결과의 불평등 또한 정당화된다고 본다. 즉 공정한 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 ① 물은 토끼에게 더 유리한 장소였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 ② 거북이가 경주 장소를 바다로 바꾼다면 공정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③ 거북이가 승리한 것은 정의로운 결과이므로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④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것은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거북이의 꾸준한 노력이 결과를 바꾼 것이므로 공정한 절차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기>는 강연을 들은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강연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학생 1: 승리하기 위해 상대의 실수를 이용한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어.
 학생 2: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 정의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져.
 학생 3: 수업 시간에 배운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떠올리며 들으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학생 4: 학급회의 때 내 입장만 생각해서 의견을 고집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었어.
 학생 5: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라고 알고 있었는데, 강연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 ① 학생 1은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② 학생 2는 강연자의 주제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③ 학생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이해하고 있군.
- ④ 학생 4는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⑤ 학생 5는 강연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언급하고 있군.

[4~7] (가)는 ‘사회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고, (나)는 행사 후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모집 공고

‘문학으로 소통하는 영화감독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할 사회자를 모집합니다.

- 면접일: 2018. 9. 5.
- 영화 작품명: 동백꽃(박진 감독, 김유정 원작)

(가)

학생: 안녕하세요? ‘문학이 좋다, 영화가 좋다’의 사회를 맡고 싶은 1학년 최지영입니다.

교사: 네, 반갑습니다. 정식 행사명을 바꿔 말씀하셨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 행사 제목을 재미있게 만들면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름을 바꿔 보았습니다. 지난 학기에 ‘교내 인문학 특강’이라는 제목만 보고 지루할까 봐 신청을 주저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강연을 들어 보니 재미있었고, 도움도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사 이름을 새롭게 지었다는 것이군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생: 저의 장래 희망은 문화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거나 인터뷰 영상을 보며 혼자 취재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모집 공고를 보고 실제로 문화계 인사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교사: 그렇다면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학생: 저는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감독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 감독님의 영화를 소개한 기사를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교사: 감독님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질문하고 싶습니까?

학생: 주로 1930년대 소설을 영화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문학 속 인물들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재탄생시키셨는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교사: 혹시 행사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나요?

학생: 메모판을 만들어 학생들의 질문을 받은 후, 그 내용도 인터뷰 대본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사 홍보도 되고, 참가 학생들이 자기가 한 질문이 나온다는 기대로 행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인터뷰 내용 준비와 행사 홍보를 한꺼번에 할 계획이란 말씀이군요. 행사를 위해 고민한 점이 돋보이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나)

‘문학으로 소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행사 참여 전에는 문학으로 소통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번 행사에

서 문학이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독님은 문학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1930년대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셨다. 본격적인 영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 감독님은 원작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원고지에 한 자 한 자 옮겨 적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원작을 그대로 영화에 담아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작품 속 인물들과 만날 수 있는 설레는 시간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작품 속 인물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싶다고 하셨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학 작품이 시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해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A]

4. (가)의 면접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군.
- ② 면접 지원 동기를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말하고 있군.
- ③ 청중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 전 계획을 밝히고 있군.
- ④ 수집한 자료의 장단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이름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고 있군.

5. (가)에 나타난 교사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의 답변을 요약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학생이 답변한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의 요청에 따라 면접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④ 학생의 답변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 ⑤ 학생의 답변 중 모호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6.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감독님의 영화 제작 동기를 소개한다. ①
- 행사를 통해 깨달은 내용을 언급한다. ②
- 행사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한다. ③
- 원작 소설가에 대한 감독님의 평가를 소개한다. ④
- 원작 이해를 위한 감독님의 작업 방식을 소개한다. ⑤

7. <조건>을 고려하여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행사 이후 ‘나의 다짐’을 언급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문학은 과거의 사람이 나에게 건네는 인사라고 생각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 ② 소설과 영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소설을 읽을 것이다.
- ③ 문학은 나에게 일곱 빗길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다가왔다. 문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 ④ 문학을 바탕으로 만든 감독님의 영화는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 주었다. 소설 속 동백꽃이 생강꽃의 강원도 사투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 ⑤ 문학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녀온 시간 여행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문학 속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야겠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공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기
- **작문 목적:** 예상 독자인 학생들을 설득하기

[학생의 초고]

3-5-19. 이 숫자들은 무엇을 뜻할까? 이것은 미래 세대가 살아가게 될 방식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미래 세대는 살아가는 ① 기간 동안 3개 이상의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이와 관련하여 19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만큼 배워야 할 지식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학습에 참여하며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② 그리고 단순히 평생 공부만 한다고 해서 지식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 평생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야 한다. 왜냐하면 평생 공부를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을 모두 습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지식을 구분하고 조합하여 창조하는 ‘공부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많이 아는 것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읽어 내는 능력, 필요할 때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진 셈이다. ③ 모방은 창조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미국의 ○○대학에서는 4년 내내 100권의 고전을 읽는다. 철학부터 수학, 과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교육 과정의 전부다. 취업에 몰두하는 다른 대학과 달리 ○○대학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온종일 책을 읽고 토론하며, 그 속에서 ④ 자신에 생각을 키워 나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기존의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인지를 ⑤ 판결하고 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하며 ‘공부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공부 방법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 ② 공부의 개념을 정의하며 공부와 대학 진학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미래 세대의 공부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 ④ 공부에 대한 통념을 반박하며 나이에 따른 공부 시기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 ⑤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대에 따른 공부 목표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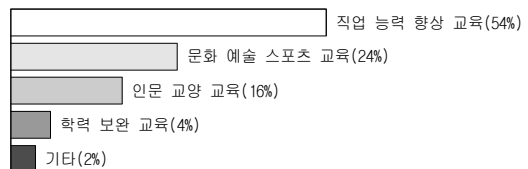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폴러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25년으로, 현재는 13개월로 그 주기가 단축됐다. 2030년이 되면 지식 총량이 3일에 두 배씩 증가한다고 한다.

(나) 통계 자료

1. 평생 학습 참여율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 학습 참여율은 2015년 36.8%, 2016년 40.6%, 2017년 44.2%로 증가함.

2. 평생 학습 참여 분야(2017년)



(다) 인터뷰 내용

“저희 연구팀은 융합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국어와 수학, 물리의 기본 지식들을 활용해 연구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 정리된 개념들을 관련짓고 융합하여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존 지식들을 융합하면 유용한 새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지식이 빠르게 늘어나는 미래 시대의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다.
- ② (나)-1을 활용하여 평생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겠다.
- ③ (다)를 활용하여 기존의 지식을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만드는 공부의 사례를 보여 주어야겠다.
- ④ (가)와 (나)-2를 활용하여 지식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학력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많은 지식 중에서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공부가 중요함을 보여 주어야겠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기간'을 삭제해야겠어.
- ② ㉡: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고쳐야겠어.
- ③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자신의'로 고쳐야겠어.
- ⑤ ㉤: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판단'으로 바꿔야겠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 like you.'를 번역할 때, 듣는 이가 친구라면 '난 널 좋아해.'라고 하겠지만, 할머니라면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며,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쓰기도 한다. 그 밖에 '께서', '주무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고, ㉠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	하십시오체	예) 합니다, 합니까? 등
	하오체	예) 하오, 하오? 등
	하계체	예) 하네, 하는가? 등
	해라체	예) 한다, 하냐? 등
비격식체	해요체	예) 해요, 해요? 등
	해체	예) 해, 해? 등

격식체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자리나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은 '모시다', '여쭙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11. 다음 문장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셨다.
- ② 교수님께서서는 책이 많으시다.
- ③ 어머니께서 음악회에 가셨다.
- ④ 선생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 ⑤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복도에서 친구와 만난 상황)

성호: 지수야, ㉠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어.

지수: 지금 바빠서 ㉡ 선생님께 자료 드리기가 어려운데, 네가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

성호: ㉢ 네가 선생님을 직접 뵈고,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수: 알았어.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간 상황)

선생님: 지수야, 이번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지? 발표 자료 가져왔니?

지수: 여기 있어요. ㉣ 열심히 준비했어요.

선생님: 그래, 준비한 대로 발표 잘 하렴.

(수업 중 발표 상황)

지수: ㉤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① ㉠: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② ㉡: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③ ㉢: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④ ㉣: 듣는 사람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어요'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⑤ ㉤: 수업 중 발표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마치겠습니다'라고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군.

13. <보기 1>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보기 2>의 ㉠~㉣을 발음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ㅌ,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ㄹ]으로 발음한다.

제12항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ㄸ’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ㄴ), ㄷ(ㄸ, ㅌ, ㄷ, ㅌ, ㅌ), ㅂ(ㅃ, ㅍ, ㅍ, ㅍ, ㅍ), ㅅ(ㅆ, ㅅ, ㅅ, ㅅ, ㅅ), ㅇ(ㆁ, ㄹ, ㄹ, ㄹ,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보기 2>

주름이 ㉠ 많던 그 이마에는

㉔ 짧어 품었던 꿈들 사라졌지만
너희가 없으면 나도 ㉕ 없단다.

㉔ 꽃처럼 ㉕ 웃던 우리 어머니

- ① ㉠은 제12항 규정에 따라 [만턴]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은 제14항 규정에 따라 [절터]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은 제14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업따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은 제9항 규정에 따라 [꼴]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은 제9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올뎌]으로 발음해야겠군.

1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보 기>

한글 맞춤법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끓던 물이 얇아졌다.	끓든 물이 얇아졌다.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 ① 영화나 보러 가던가.
- ② 그 사람 말 잘하는데!
- ③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 ④ 어찌하던지 간에 나는 신경 안 써.
- ⑤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봐.

15. 다음은 단어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르다² 「동사」

① 【...을】

㉠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 흠 있는 책을 돈으로 물렀다.

㉔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 한 수만 물러 주게.

② 【...으로】 있던 자리에서 뒤로 옮기다.

¶ 가운데 앉지 말고 뒤로 물러 벽 쪽으로 붙어 앉으렴.

무르다³ 「형용사」

㉦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

¶ 무른 살

㉔ 마음이 여리거나 힘이 약하다.

¶ 성질이 무르다.

- ① 무르다²와 무르다³는 서로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군.
- ② 무르다²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의어이군.
- ③ 무르다²의 ㉠-㉡의 유의어로 ‘빠다’가 가능하겠군.
- ④ 무르다²는 무르다³과 달리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군.
- ⑤ 무르다³의 ㉢의 용례로 ‘그는 마음이 물러서 모진 소리를 못 한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행하면서도 열차끼리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열차를 운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하나의 구간에는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구간을 ‘폐색구간’이라고 한다. 폐색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열차 운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차나 선로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자동폐색장치(ABS)’는 폐색구간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설치하고 ‘레드회로’를 이용하여 열차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이다. 폐색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에는 정지 신호인 적색등이 켜지고, 열차가 폐색구간을 지나간 후에는 다음 기차가 진입해도 좋다는 녹색등이 표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뒤따라오는 열차의 기관사는 앞 구간의 열차 유무를 확인하여 열차의 운행 속도를 제어하고 앞 열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열차 사고를 방지한다.

그런데 악천후나 응급 상황으로 기관사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를 ‘자동열차정지장치(ATS)’라고 한다. ATS는 선로 위의 지상장치와 열차 안의 차상장치로 구성되는데, 열차가 지상장치를 통과할 때 지상장치에서 차상장치로 신호기 점등 정보를 보낸다. 이때 차상장치에 ‘정지’를 의

미하는 적색등이 켜지면 벨이 울려 기관사에게 알려 준다. 그러면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열차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고 앞 열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벨이 5초 이상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열차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ATS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동장치에 비상 제동을 명령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 서게 한다. 이렇게 ATS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예방해 준다. 하지만 ㉠ 평상시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줄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동열차제어장치(ATC)’는 신호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열차 제한 속도 정보를 지상장치에서 차상장치로 전송한다. 그리고 전송된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열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제어함으로써 선행 열차와의 충돌을 막아주고 좀 더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해준다. ATC는 송수신장치, 열차검지장치, 속도신호생성장치, 속도검출기, 처리장치,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개의 궤도회로로 나뉜 선로 위를 A열차와 B열차가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A, B열차가 서로 다른 궤도회로에 각각 진입하면 지상의 송수신장치에서 열차검지장치로 신호를 보내고 열차검지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선로 위에 있는 A, B열차의 위치를 파악한다. 속도신호생성장치는 앞서가는 A열차의 위치와 뒤따라오는 B열차의 위치를 바탕으로 B열차가 주행해야 할 적절한 속도를 연산하여 B열차의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 이 속도는 B열차가 위치하고 있는 궤도회로에 전송되고 지상의 송수신장치를 통해 B열차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달된다.

그러면 B열차의 운전석 계기판에는 수신된 제한 속도와 속도검출기를 통해 얻은 B열차의 현재 속도가 동시에 표시되어 기관사가 제한 속도를 확인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열차의 현재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제동장치가 작동되며 열차의 속도를 줄여 준다. 속도가 줄어 제한 속도 이하가 되면 제동이 풀리고 기관사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ATC는 열차가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주지만, 제한 속도 안에서는 기관사가 직접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사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열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운행 간격을 최대한 단축하고 열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궤도회로: 레일을 전기회로의 일부로 사용하여 레일상의 열차를 검지하는 회로. 신호와 경보기 등을 제어하고 지상에서 차상에 정보를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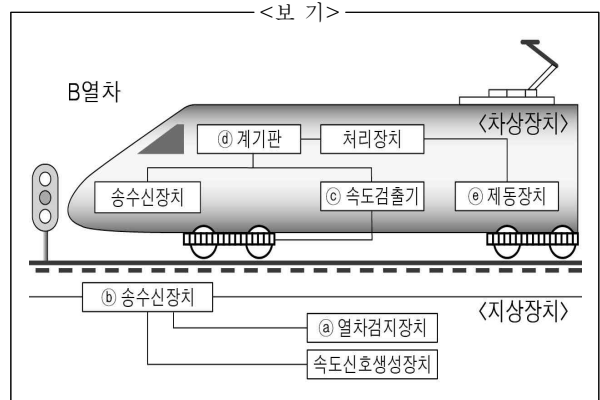
16. 밑줄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열차 운행의 과제
 - 안전장치의 종류와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 ② 열차 안전사고의 현황
 - 폐색구간에서의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 ③ 열차 운행 구간의 종류
 -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운행 속도를 중심으로
- ④ 열차 사이의 운행 간격 조절
 - 속도검출기의 작동 과정을 중심으로
- ⑤ 열차 속도 검출 방식의 역사
 - 자동열차정지장치와 자동열차제어장치를 중심으로

1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폐색구간’은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정해진 구간이다.
- ② ‘자동폐색장치’는 정지 신호를 오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 준다.
- ③ ‘자동폐색장치’는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열차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 ④ ‘자동열차정지장치’는 지상장치와 차상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자동열차정지장치’는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여 열차를 정지시킨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은 선로 위에 있는 B열차의 위치를 파악한다.
- ② ㉡를 통해 B열차의 운행 제한 속도가 차상장치에 주기적으로 전달된다.
- ③ ㉢은 B열차가 주행해야 할 속도를 연산하여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
- ④ ㉣를 통해 B열차의 기관사는 운행 제한 속도와 현재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은 B열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처리장치에서 신호를 받아 열차의 속도를 줄여 준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지 신호가 수신될 때 벨이 울리기 때문에
- ② 열차의 운전석 안에도 신호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 ③ 기관사가 신호기 정보를 직접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 ④ 비상시에 열차의 충동을 자동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기관사가 열차의 운행 속도를 직접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나투스(Conatus)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물의 본질인 코나투스라는 것이다.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던 그는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충동이라 부르고, 다른 사물들과 같이 인간도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인간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다며 인간의 충동을 욕망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를 본질로 지닌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이상 삶을 지속하기 위해 힘쓴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 인간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때 타자로부터 받은 자극에 의해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을 신체의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던 스피노자는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면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코나투스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위해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편 스피노자는 선악의 개념도 코나투스와 연결 짓는다. 그는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보면 선이란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악은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정서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선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며, 악은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인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한다. 슬픔은 거부하고 기쁨을 지향하라는 것, 그것이 곧 선의 추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나투스는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간에게는 타자와 함께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자신과 타자 모두의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우리에게 하는 당부이다.

20. 윗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코나투스의 의미
- ② 정신과 신체의 유래
- ③ 감정과 신체의 관계
- ④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
- ⑤ 코나투스와 관련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인간과 세계의 본질로 생각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우고 채워도 욕망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삶을 욕망의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부정하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금욕주의를 주장했다.

- ①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욕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군.
- ②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인간은 욕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군.
- ③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삶을 욕망의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겼군.
- ④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와 달리, 욕망을 인간의 본질로 보고 있군.
- ⑤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와 달리,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군.

22. 윗글에 나타난 선악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선이다.
- ② 선악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 ③ 선악에 대한 판단은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④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악이다.
- ⑤ 기쁨의 관계 형성이 가능한 공동체는 선의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도시 변두리에서 노새 마차를 몰면서 연탄 배달 일을 한다. 어느 날 가파른 골목을 오르던 마차가 넘어지면 서 노새가 달아나 버리고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헤맨다.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재를 뒤집어쓰고 다닌대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물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감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었다. 어찌다가 행 하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맣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눈 하나만은 쨍하니 크게 빛났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렀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네를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뽕 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달이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뽕’, 종달이더러는 ‘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철이 귀달이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밥 열 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뜸으로 미리 자권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열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 쉬고 올려 쉬곤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아 온 밥상을 한엿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드러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별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티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들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

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중략)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으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지?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히한 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다.

㉣ “이걸 어찌우. 글썽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찌지.”

“노새는 찾았대?”

“찾고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없고 사람들은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뛰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범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히 하고 코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적스적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봉봉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뽕뽕거리고, 자전거가 뽕뽕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풍자적 기법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시점의 전환을 통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사건의 반전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24. [자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가 ‘칠수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 ② ‘나’와 ‘노새’가 동네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나’의 가족이 시골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아버지’가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노새를 끄는 이유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2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늦게까지 ‘노새’를 찾는 ‘아버지’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군.
- ② ㉡: 가족들이 ‘노새’를 찾지 못한 ‘아버지’의 무능력함에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 달아난 ‘노새’를 대신하려는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군.
- ④ ㉣: ‘어머니’가 ‘노새’로 인해 생긴 문제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 ‘나’는 힘들고 지친 ‘아버지’를 ‘노새’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6.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까마귀 새끼.”
영길이가 놀렸다.
“너네 아버지는 까마귀, 넌 까마귀 새끼.”
종달이가 거들었다.
“신발도 짬장 구두, 연탄재 뒤집어쓴 껌정투성이.”
아버지가 시장 경비원인 순철이도 한마디 했다.
“그래, 나 까마귀 새끼다. 그러는 니들은 뭐가 달라서.”
“너네 아버지는 콧물도 까맣더라.”
귀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는데, 귀달이도 나를 놀린다. 나도 뺨튀기 장수 아들 영길이와 번테기 장수 동생 종달이의 별명을 불렀다.
“영길이는 뺨, 종달이는 뺨.”

- ①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인물 간의 대립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보여 주어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룡이 기뻐하며 쌀을 내어 줄 때에 잠깐 살펴보니 그 처녀의 인물이 대단히 빼어나더라. 세상의 사람 같지가 않거늘 마음속에 의심하되,
“신선이 산중에 하강하였는가?”
하였더니 한참 있다가 방에서 나와 말하되,
“방안에 들어와서 저녁을 드십시오.”
하거늘 화룡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허거늘 면하는 것도 다행이거늘 감히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니 처녀가 말하기를,
“병이 들었는데 찬 곳에서 음식을 드시면 병이 낫지 아니 할 것이니 상공은 사양치 마소서.”
화룡이 여러 번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는 체하고, 방에 들어가 살펴보니 세간은 많지 아니하나 아주 넉넉하고 깨끗하게 보이거늘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괴상하더니 그 처녀가 밥상을 가져오기에 밥을 먹으려 할 때 처녀가 좋은 술을 금잔옥대에 가득 부어 권하며 말하되,
“낭군은 허물하지 마옵소서. 이곳이 사실은 인간의 집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덤의 임자입니다. 그대와 전생의 연분이 중하나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 볼 길이 없었더니 천만 뜻밖에 이 앞으로 지나가심을 보고 전생의 인연을 맺고자 하여 과연 첩이 은근하게 공자를 만류하여 밥을 무겁게 하고 온 몸이 부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첩이 그렇게 한 것이오니 낭군은 첩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술 석 잔을 권하거늘 화룡이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두려워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니 몸의 부었던 기색이 없어지고 기운이 특별히 썩씩해지거늘 한참 동안 진정하다가 말하기를,
“그대와 더불어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나 천생연분의 인연이 없거늘 평생의 인연이 중하다 하오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의 부모는 뉘시며 연세는 얼마나 되며 성명은 무엇이랴 하나이까?”
처녀가 대답하기를
“인간 세상의 부모는 황승상이요, 어머니는 우강노 강처사의 따님입니다. 저의 이름은 월계요, 자는 의선이며, 사는 곳은 황성 영분관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는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늦어서야 저를 낳아 나이가 십팔 세가 되어 구혼할 때 기주 땅에 살고 있는 최상서의 아들과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첩이 생각한즉 마음에 부당하고 또 혼인은 인간의 중대한 일이라서 천정연분이 아니면 부부 사이의 화목한 즐거움이 없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집안이 불안할 것이며 또 집안이 불안하면 부모에게 욕이 될 뿐만 아니라 혼인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낭군을 만날 길이 없으므로 부모의

[A]

슬하를 떠나 죽어서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낭군이 오늘 밤 여기서 머물고 가시면 이번 과거
에 장원급제 할 것이며 장래에 벼슬이 높아져서 대장
군 절월*과 승상의 인수*를 청춘에 가질 수 있을 것이
고 부귀와 영화는 천하에 으뜸이 될 것입니다. 낭군은
저를 귀신이라 생각 마시고 오늘 밤에 혼인의 맹세를
이루어 둔 후 내일 날이 채 밝기 전에 이 앞의 오동나
무가 세 번 소리를 내면 날이 새나니 그 소리를 들으
시고 급히 나가소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장원급제한 화룡은 월계와 인연을 이어가다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선계에서 받아온 꽃과 약수로 월계를 살
려낸다. 한편 최상서는 재주가 뛰어난 화룡을 꺼려하여 해치려고 한다.

석시랑은 황제의 총애가 있으므로 마음대로 해치지 못하여
상서는 매일 해칠 꾀를 생각하더니 문득 하나의 묘한 계책을
생각하여 천자에게 아뢰고 관상을 잘 보는 진성인이란 사람
을 불러 계교를 가르치되,

“황제가 그대를 불러들이거든 이리이리 대답하라.”

하고 당부하여 보내고 황제께 들어가 아뢰되,

“황상께서는 새로 장원급제한 석화룡을 어떻게 보시기에
사랑하시고 시랑 겸 학사로 대접하시나이까?”

황제가 말씀하시되,

“화룡은 하늘이 짐에게 주신 바이라. 어찌 대접하지 아니하
리요.”

상서가 아뢰되,

“관상 잘 보는 진성인의 관상 보는 법은 털끝만큼도
잘못 보는 법이 없더니 그가 화룡의 관상을 보고 크
게 의심하기에 소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진성인이 답
하기를, ‘천자께서 화룡을 중하게 여기시나 마침내 반
역의 마음을 나타낼 것이고 또 그의 부모가 장사랑에
게 벼슬하고 있으니 필경은 호랑이를 길러서 화를 남
기는 경우가 될 것이며 십 년 내에 국가에 반역하리
라.’ 합니다.”

황상이 진성인을 불러 후원에 들어가 은근히 물으실 때 진
성인이 최상서의 말대로 아뢰니 황제가 크게 의심하여 최상
서에게 다시 물으니 최상서가 아뢰되,

“황제께서 진성인의 말을 자세히 들어 보셨나이까? 이것은 적
지 아니한 근심입니다. 폐하는 빨리 화룡을 멀리 하옵소서.”

황제가 깊이 생각에 잠기시니 최상서가 또 아뢰되,

“화룡을 까닭 없이 죽이지는 못할 것이나 이제 제 한 몸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유배를 하시면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황제가 오히려 믿지 아니하거늘 최상서가 또 아뢰되,

“소신이 물러가서 자세히 살펴서 아뢰겠습니다.”

하고 물러 나와 묘한 계책을 생각하여 즉시 상소하되,

“예부시랑 석화룡은 반역한 죄인 장사랑에게 저의 부모를
보내어 벼슬하게 하고 자신은 태연하게 조정에 벼슬하여
나라의 사정을 알아서 몰래 적과 대통하는 일이 있사오니
이는 지극한 간신입니다. 폐하는 각별히 처치하옵소서.”

하였거늘, 황제가 그 상소를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다가,

“화룡을 해랑도에 유배하라.” 하시더라.

— 작자 미상, 『석화룡전』 —

* 절월: 출정하는 대장에게 왕이 주던 깃발과 도끼로 생살권(生殺
權)을 상징함.

* 인수: 관청의 관리가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에 단 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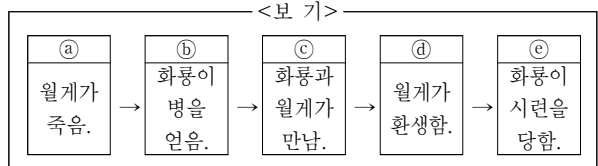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상서는 황제를 설득하기 위해 진성인을 이용하였다.
- ② 월계는 화룡에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다.
- ③ 화룡은 월계를 보고 신선이 하강한 것으로 의심을 하였다.
- ④ 황제는 하늘의 뜻을 내세워 화룡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 ⑤ 화룡은 월계를 만나기 전에 월계와의 인연을 알지 못하였다.

28.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며, 이를 수락할 경우에 상
대방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B]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을 치켜세우고
있다.
- ④ [B]에서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하며,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위로하
고 있다.

29. <보기>는 윗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정혼이 월계를 죽음에 이르게 하
였군.
- ② b: 화룡과 인연을 맺고 싶은 월계가 화룡의 몸을 부어오르
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군.
- ③ c: 월계가 화룡에게 무덤의 임자가 자신임을 밝힌 것은 오
랜 기다림으로 인한 원망 때문이군.
- ④ d: 화룡이 선계에서 얻은 꽃과 약수로 월계를 되살린 것은
월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군.
- ⑤ e: 최상서의 모함으로 인해 화룡은 해랑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군.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으로, 커다란 크기만큼 하는 일이 많아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한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나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흡수된 여러 영양소는 대부분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 간은 그 영양소들을 몸에서 요구하는 다른 영양소로 만들거나, 우리 몸을 위해 저장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간의 구조와 혈액의 공급 방식 때문이다.

간은 육각형 기둥 모양의 **간소엽**이라는 작은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는 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간세포로 채워져 있다. 간소엽의 중심부에는 중심 정맥이 놓여 있어 간을 거친 혈액을 간정맥으로 보내 심장으로 흐르게 한다. 그리고 육각형 기둥의 각 모서리에는 간문맥, 간동맥, 담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간문맥과 간동맥은 혈액이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유입되는 관이고, 담관은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는 관이다.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의 혈액 순환은 혈액이 동맥으로 들어와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산소와 영양소의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맥을 통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간의 혈액 순환은 예외적으로 혈액이 간동맥과 간문맥이라는 2개의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 미세혈관을 지나 중심 정맥으로 흘러 나간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맥인 ‘간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고, 소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인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은 위나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이동시킨다. 이 두 혈관들은 간소엽 내부에서 점차 가늘어져 ‘시누소이드’라는 미세혈관으로 합쳐지는데, 시누소이드는 말미잘처럼 길게 배열되어 있는 간세포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시누소이드를 흐르는 혈액은 대사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간세포에 공급하고, 간세포의 대사 활동의 결과물인 대사산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 등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물질 교환’이라 한다. 이렇게 시누소이드를 거친 혈액은 중심 정맥으로 유입된 후, 다시 간정맥으로 합쳐져 심장으로 ㉠ 들어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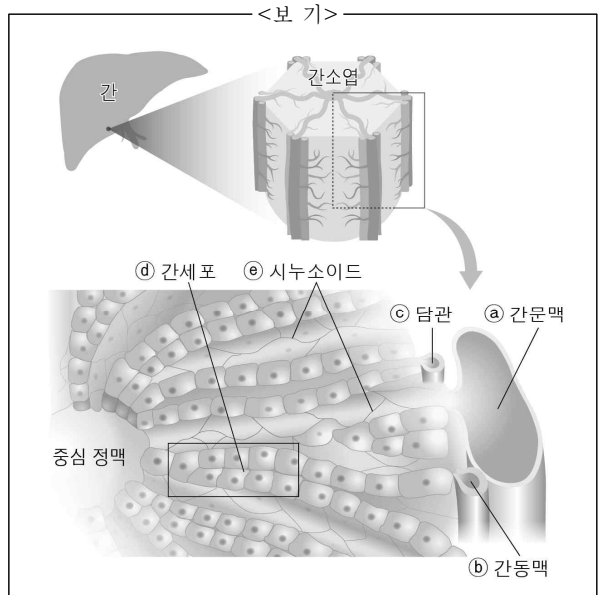
이러한 혈액 순환을 통해서 간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식사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 단백질을 위나 장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되어 혈액과 함께 간으로 이동된다. 간세포는 시누소이드를 통해 공급된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때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독 물질인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간은 이것을 요소로 변화시켜 콩팥으로 보내어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한다. 또한 간은 비타민 A를 저장하기도 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담즙을 생산하여 담관을 통해 쓸개로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간의 일부 기능은 간세포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간은 다른 세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간세포와 시누소이드 사이에 존재하는 세포들 중 쿠퍼세포는 몸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면역 체계에 노출시켜 몸이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간은 1분마다 1.4L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쿠퍼세포는 몸이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거나 저장한다.
- ③ 간에서 나온 혈액은 간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흐른다.
- ④ 간으로 이동된 요소는 간동맥에 의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 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2개의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받는다.

31. <보기>는 **간소엽**의 일부를 확대한 그림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는군.
- ②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를 통해 쓸개로 보내지는군.
- ③ ㉠은 ㉢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 대사 활동을 하는군.
- ④ ㉢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중심 정맥으로 보내지는군.
- ⑤ ㉢은 ㉠과 ㉡가 간소엽 내부에서 점차 가늘어져 합쳐진 것이군.

3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 ② 통신티어로 들여간 돈이 너무 많다.
- ③ 고생을 많이 했는지 눈이 썩 들어갔다.
- ④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간다.
- ⑤ 동생은 올해 여덟 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죄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의 육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거나 재산 또는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론의 통제를 통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범죄학’이다.

① ‘고전주의 범죄학’은 법적 규정 없이 시행됐던 지배 세력의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며 18세기 중반에 등장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 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범죄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인 베카리아는 형벌은 법으로 ㉔ 규정해야 하고, 그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벌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범죄 행위의 예방이며,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구나 법에 의해 확실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장은 각 국가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 혼란으로 범죄율과 재범률이 증가하자,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 ㉕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며,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자유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요소에서 찾으려 했다. 이 분야의 창시자인 콥프로소는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개별적 범죄 기질을 도출하고 그 기질에 따른 교정이나 교화,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범죄자만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연구하여 범죄자들의 유형을 ㉖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출생부터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무기한 구금을 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수감에는 반대했고, 이러한 생각은 이후 집행 유예 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비록 차별과 편견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콥프로소의 연구는 이후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의 탄생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범죄학의 큰 흐름들은 범죄를 억제하려는 그동안의 법체제와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시도들의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환경에 의한 범죄 유발 요인과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기회의 감소 효과 등을 연구하는 ‘환경 범죄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학이나 도시 설계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해법을 환경과 디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셉테드(CPTED)’라 불리는 범죄 예방 설계가 그것이다. 셉테드는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㉗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의미한다.

셉테드는 다음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우선 ‘자연적 감시의 원리’는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은폐 장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내부인이나 외부인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접근 통제’의 원리는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사람들의 통행을 일정한 경로로 ㉘ 유도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영역성의 원리’는 안과 밖이라는 공간 영역을 조성하여 외부인의 침범 기준을 명확히 ㉙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공공장소 및 시설에 대한 내부인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그 근방의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활동의 활성화 원리’, 공공장소와 시설물이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유지 및 관리의 원리’가 있다. 이 모든 원리는 범죄 예방의 전략과 목표를 범죄자 개인이 아닌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설계와 계획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A]

우리나라는 2005년 즈음부터 셉테드를 도입하여 도시 설계와 건축물에 범죄 예방 설계 활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법과 정책, 그리고 셉테드가 동시에 강화된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3.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통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두 이론의 장점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34.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형벌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군.
- ② ㉒은 범죄자들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군.
- ③ ㉑은 ㉒과 달리 연구의 초점을 범죄의 처벌보다는 범죄의 원인에 두고 있군.
- ④ ㉑은 ㉒과 달리 범죄에 따른 형벌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⑤ ㉒은 ㉑과 달리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만 범죄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군.

35.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합리적 선택이론’은 합리적 인간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즉 잠재적 범죄자들은 개인과 주변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범죄로 인한 이익과 범죄의 실패 위험을 비교한 후 범행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발각될 환경적 요인이 강화될 경우 범죄 실행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 ① 베카리아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비판하겠군.
- ② 베카리아와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중시하고 있군.
- ③ 롬브로소가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겠군.
- ④ 셉테드와 달리 합리적 선택이론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인간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군.
- ⑤ 셉테드와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두 환경적 요인의 개선이 범죄 예방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36. [A]를 참고하여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교는 개교한 지가 오래돼 다소 음침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이에 학교는 교내 외진 장소에 다양한 운동 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곳에 CCTV를 설치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학교 담장은 철거하고, 대신 작은 나무와 꽃들을 심은 화단을 조성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후문을 폐쇄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정문으로 유도했고, 학생들과 교사는 환경지킴이라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개선된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봉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① 후문을 폐쇄한 것은 ‘접근 통제의 원리’를 통해 사람들의 통행을 정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학교 담장을 허문 것은 ‘자연적 감시의 원리’를 통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봉사 동아리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통해 환경 설계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 ④ 다양한 운동 시설을 설치한 것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를 통해 외진 장소에서의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는 것이다.
- ⑤ 교내 외진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영역성의 원리’를 통해 안과 밖이라는 공간 영역을 명확하게 확립한 것이다.

3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쳐야 ② ㉡: 나누고 ③ ㉢: 높이는
- ④ ㉠: 이끌어 ⑤ ㉢: 세우는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성은(聖恩)이야 망극(罔極)할사 성은(聖恩)이다
강호(江湖) 안로(安老)도 분(分) 맞기 일이어든
하물며 두 아들 정성을 다해 봉양함은 또 어인가 하노라

<제2수>

전나귀 바삐 몰아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피 거친 밥에 찬물(饑物)*이 아조 엷다
아희야 배 내어 띄워라 그물 놓아 보리라

<제4수>

달 밝고 바람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일다
단정(短艇)*을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 하는 흥(興)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마라 세상(世上) 알가 하노라

<제5수>

모래 우회 자는 ㉠ 백구(白鷗) 한가(閑暇)할사
강호(江湖) 풍취(風趣)를 내가 지닐 때 내가 지닐 때
석양(夕陽) 반범귀흥(半帆歸興)*은 너도 날만 못 하리라

<제6수>

식록(食祿)*을 굶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하니
험 업슨 아이들은 괴롭다 하지마는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이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9수>

- 나위소, 「강호구가(江湖九歌)」 -

* 찬물: 반찬이 될 만한 것. / * 단정: 자그마한 배.

* 반범귀흥: 돛을 반쯤 올리고 돌아오는 뗏.

* 식록: 먹고 살기 위한 벼슬. / * 어조: 낚시질.

(나)

이자(李子)가 저녁의 서늘함을 맞아, 뜰에 나가 거닐다가
㉡ 거미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짧은 처마 앞에 거미줄을 날리며 해바라기 가지에 그물을 펴고 있었다. 가로로 치고 세로로 치고 버리로 하고 줄로 하는데, 그 너비는 한 자가 넘고 그 제도는 규격에 맞으며 촘촘하며 성글지 않아 실로 교묘하고도 기이하였다. 이자는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겨 지팡이를 들어서 거미줄을 걷어 버렸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는 또 내치려고 하는데, 거미줄 위에서 소리치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

“나는 내 줄을 짜서 내 배를 도모하려 하거늘 그대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같이 나를 해치는가?”

이자가 성내어 말하였다.

“뗏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벌레들의 적이다. 나는 다시 또 너를 제거하여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한다.”

다시 웃으며 말하는 것이 있었다.

“아, 어부가 설치한 그물에 바닷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이 어부가 포획해서이겠는가? 우인(虞人)*이 놓은 그물에 들짐승이 푸줏간에 올려지는 것이 어찌 우인의 교(敎)이겠는가? 법관이 내건 법령에 못 완악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이 어찌 법관의 잘못이겠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복희씨(伏羲氏)의 그물*을 시비하지 아니하고 백익(伯益)의 불태움*

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고요(阜陶)의 형벌 제정을 책망하지 아니하는가?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 더구나 그대는 내 그물에 걸려든 놈을 알기나 하는가? 나비는 허랑방탕한 놈 일 뿐 분단장을 하여 세상을 속이고 변화함을 좋아하여 좇으며 흰 꽃에 아침하고 붉은 꽃에 아양 떠다.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파리는 참으로 소인배라. 옥 또한 참소를 입었고 술과 고기에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좋아하여 싫증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매미는 자못 청렴 정직하여 글하는 선비와 비슷하지만 '선명(善鳴)'이라 스스로 자랑하며 시끄럽게 울어 그칠 줄 모른다. 이리하여 내 그물에 걸려들게 된 것이다. 벌은 실로 사랑 같은 놈이라. 제 몸에 꿀과 칼을 지니고 망령되이 관아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공연히 봄꽃 탐하기를 일삼는다. 이리하여 내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모기는 가장 영리한 놈이라. 성질이 흉악한 짐승 같아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나타나서 사람의 고혈을 빨아댄다. 그렇기에 내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잠자리는 품행이 없어 경박한 공자처럼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으며 홀연히 회오리바람인 양 날아다닌다. 그렇기에 또한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부나방이 화(禍)를 즐기는 것, 초파리가 일을 좋아하는 것, 반딧불이가 허장성세하여 불빛을 내는 것, 하늘소가 함부로 그 이름을 흠치는 것, 선명한 옷차림을 한 하루살이 무리,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말뚝구리 무리와 같은 것들은 재앙을 스스로 만들어 흥액을 피할 줄 모르니 그물에 몸이 걸려 간과 너가 땅바닥을 칠하게 된다. 아, 세상은 성장(成康)의 시절이 아니어서 형벌을 놓아두고 쓰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은 신선이나 부처가 아니어서 소찬(素餐)만 먹을 수도 없다. 저들이 그물에 걸린 것은 곧 저들의 잘못이지 내가 그물을 쳤다고 하여 어찌 나를 미워한단 말인가? 또 그대가 저들에게 어찌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만은 어찌하여 화를 내고, 나를 휘방하면서까지 도리어 저들을 감싸준단 말인가? 아, 기린은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고 봉황은 유인할 수 없는 것이니 군자는 도를 알아서 죄를 지어 구속됨으로써 재앙을 입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 삼가고 힘쓸지어다! 그대의 이름을 팔지 말며 그대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며 이욕으로 화를 부르지 말며 재물에 목숨을 바치지 마라. 경박하거나 망령되이 굴지 말며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더 큰 거미가 있으니 그 그물이 나보다 천 배, 만 배가 될 뿐이 아닐 것이다.”

이자가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고 달아나다가 세 번이나 자빠지면서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서야 몸을 구부리고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거미는 그 실을 내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었다.

- 이옥, 「거미를 얹은 부」 -

* 우인: 고대 중국에서 산림(山林)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복희씨의 그물: 복희씨는 중국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으로 노끈을 뺏어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하고 고기를 잡았다고 함.

* 백익의 불태움: 백익은 순임금의 신하로 산에 불을 질러 태우자 짐승이 도망하여 숨었다고 함.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유한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부정적인 세상의 모습을 비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9.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은 이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에게, ㉡은 이자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소재이고, ㉡은 이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고, ㉡은 이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고, ㉡은 이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소재이다.

40.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연쇄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호가』는 나위소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나주에 돌아와 영산강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성은(聖恩)의 감격을 드러내며,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또한 세속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강호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

- ① ‘망극할사 성은이다’에는 자연을 즐기며 자식의 봉양을 받는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아희야 배 내어 띄워라 그물 놓아 보리라’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낚시를 하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세상 알가 하노라’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을 세속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④ ‘식록을 굶친 후로 어조를 생애하니’에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강호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⑤ ‘이 내 분인가 하노라’에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이자가
거미줄을 건음.

→

[B]
거미가
이자에게 말함.

→

[C]
이자가
달아남.

- ① 이자는 다른 벌레들을 살리기 위해 [A]의 행동을 하는군.
- ② 거미는 [B]에서 벌레들이 그물에 걸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군.
- ③ 거미는 [B]에서 벌레들의 모습을 인간들의 삶의 모습으로 확장하고 있군.
- ④ [B]에서 거미는 근거를 들어 [A]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군.
- ⑤ [C]에서 이자는 [B]에 의문을 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아래 구부리고 었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째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 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엘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

(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장자의 ‘추수편’에 실린 ‘대지관어원근(大知觀於遠近)’을 빌려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공간의 이동에 따른 관점의 변화를 그리며,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설악산 대청봉’에서 화자가 본 ‘산들’과 ‘마을들’은 ‘멀리’에서 본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화자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세상살이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보아야 함을 깨달았겠군.
- ③ ‘함경도 아주머니들’, ‘마늘 장수’ 등을 만난 것은 화자에게 ‘가까이’에서 세상을 보는 경험이 되었겠군.
- ④ ‘속초’와 ‘원통’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이 변화하였겠군.
- ⑤ 화자는 ‘멀리’와 ‘가까이’에서 본 세상의 모습을 비교하며 삶을 바라볼 때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고 느꼈겠군.

45. 다음은 학생이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의 제목을 보니, ㉠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 시를 쓴 계기가 된 것 같아. 화자는 이 질문에 대해, ㉡ 자신은 ‘시인이 못됨으로’ 모른다고 대답하였어. 그래서 ㉢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그 답을 물어보던 중, ㉣ 납대문 시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어. 화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 삶이 고되어도 맘 좋고 인정 넘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